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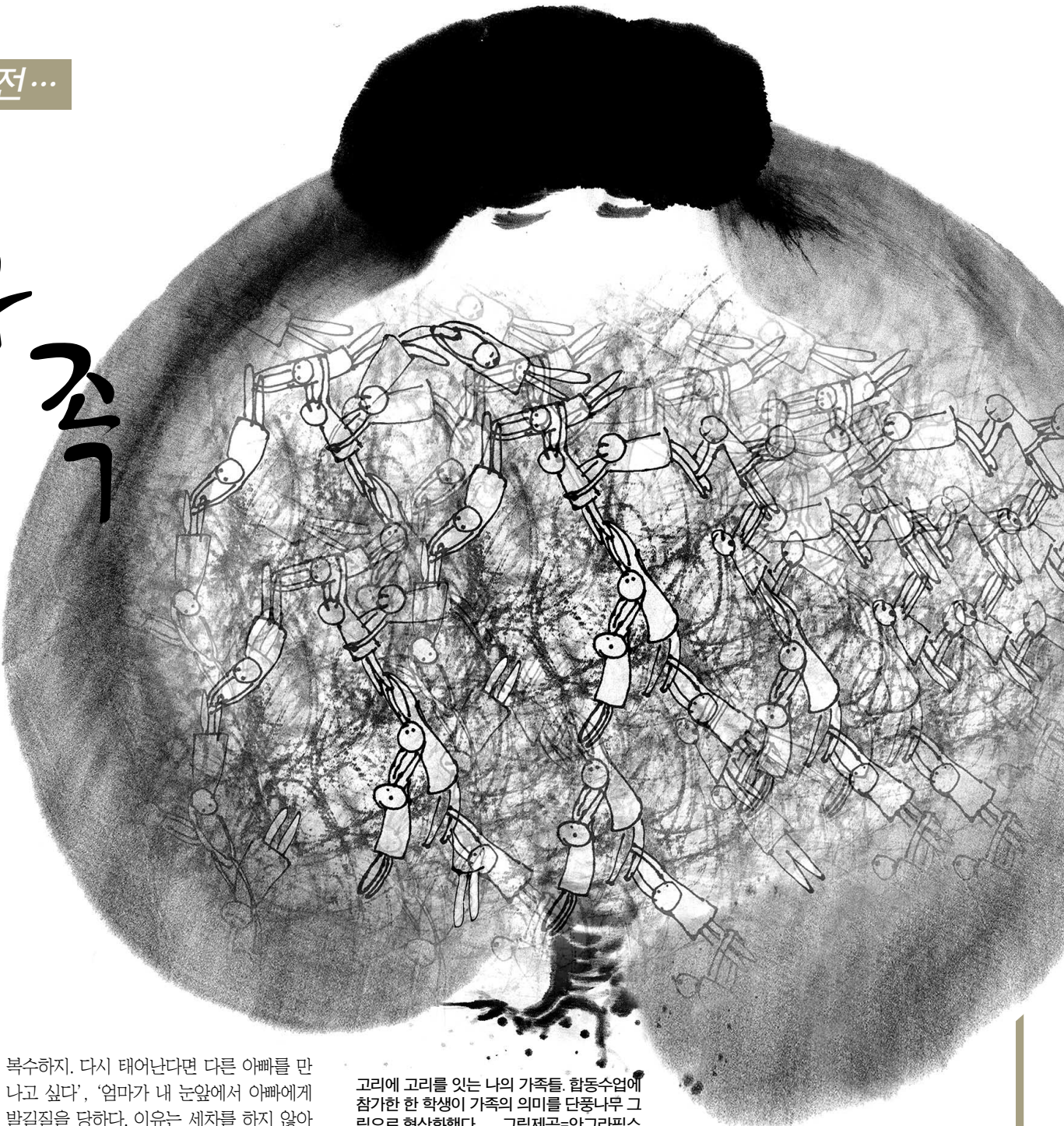
있어서 부담, 없으면 허전...

신세대들이 말하는

가족



있다·없다-다시 쓰는 가족이야기 연세대, 하자 작업장 학교, 홍익대 학생 지음 안그래픽스 | 2만원



2004년, 신세대들이 바라본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강남 가족은 애완견이, 강북 가족은 텔레비전이 없으면 해체된다'는 말처럼, 과연 가족은 끈끈한 가족에 대신 제 3자인 애완견과 텔레비전이 '해체'를 막아주고 있을까? 가족에 대해 생각조차 피곤해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는 신세대들이 우리시대의 가족을 이야기했다.

<있다·없다-다시 쓰는 가족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현대 한국사회 가족의 실상을 짚는 시각들로 담았다. 그리고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믿음은, 이미 '가족해체기'를 맞고 있는 우리시대에서 벌써 빛겨서왔다고 증언한다.

그럼, 왜 이제 와서 해묵은 가족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인가. 그것은 가족이라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실에서, 또 '가족은 없다'고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연세대 사회학과(조한혜정 교수)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안상수 안병학 교수), 대안학교인 하자 작업장학교 65명의 학생들이 올 1학기 가족사회학 합동수업에서 진지하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또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모아 직접 책으로 묶어냈다. 만약 이 책이 진한 '가족애'를 주제로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라 예상하고 집어 든다면, 아마도 이런 짐작은 보기 좋게 빗나갈 것이다. 가족에 관한 기존 통념을 허무는 이야기기가 책에서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없다?

우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증오하는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복수하지,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아빠를 만나고 싶다', '엄마가 내 눈앞에서 아빠에게 발길질을 당하다. 이유는 세차를 하지 않아서' 등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감이 책 곳곳에 묻어났다. 심지어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에서 제제가 자신의 아버지를 늙은 나무라고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죽였듯이, 나의 가족들을 마음속에서 죽였을 지도 모른다'며 가족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글도 눈에 띈다. 또 가족에 관한 고정관념도 바꾸기를 주문한다. 가족은 어릴 때는 포근하지만, 커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엄마의 유방'과 같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입된 '국민연금'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도 가족은 있다

하지만 어떻게 가족을 바라보는 건만은 아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우고자 한다. '고리에 고리를 잇는 나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 살아온 정원 한 가운데 단풍나무, 언제나 한 몸 가득 안아주는 집', '집은 공간이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가족

고리에 고리를 잇는 나의 가족들. 합동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가족의 의미를 단풍나무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그림제공=안그래픽스

은 하나의 끈이다.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의무로, 소속해주는 사랑으로 묶어주는 끈' 등 항상 힘이 되는 공동체로 가족을 기억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책은 이처럼 제각기 다른 가족에 대한 정의와 그 경험들을 글, 이미지, 도식 등의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마치 '주름이 있는 삶'을 엿보는 감동을 안겨주듯이 '특별한' 속사정을 쏟아낸다. 주제도 틀에 가두지 않았다. 사랑, 연애, 동거, 할아버지, 땅, 주거 및 식탁공동체 등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에 조정이 맞춰졌다.

#'새로운 가족상'은 어디에

이를 위해 학생들은 '비정상적 가족은 없다' '노는 가족' '방목 가족' 등 8개의 조로 나누어 머리를 맞댔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경험들이 철저히 체험적

지식으로 다루졌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못하고, 단지 경험의 여러 결을 그대로 보여줬기에 그렇다. 때문에 책에서는 '새로운 가족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시대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가족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분명한 건 견고한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또 이를 메울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기획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연세대 조한혜정 사회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대가족이 해체된 뒤 생겨난 근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가 지금 해체 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김현아 지음 | 책갈피 | 1만3천원

말라리아 약을 쟁겨야 할 것 같은 밀랍에 대한 상상, 영화 '연인'의 제인마치 표정이 떠오르는 베트남을 그렸던 저자는 피스보트의 초대 받아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답사한다. 그러던 중,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항구도시에서 '베트남전의 한국군'이라는 코스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책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실 우리는 베트남전 참전군인, 그들의 무용담들, 미국영화에서 보아온 전쟁 등을 통해 베트남을 단편적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편견을 깨부순다. 물론 다양한 이들의 전쟁 기억,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 전쟁이야기가 작가의 여정과 함께 있지만, 이 책은 전쟁을 뼈저리게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때로는 눈물짓게 되고, 때로는 깜짝 놀라 흥분하게도 만들게 하는 이야기. 이 책은 전쟁을 겪은, 살아남은 다양한 사람들-군인, 시인, 감독, 다리를 잃은 할머니, 부인과 자식을 잃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전쟁을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스무 살 젊은 나

'다름' 부정하는 전쟁의 폭력성

겪고 싶지 않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 부모님께 소 한 마리라도 장만해 드릴 생각으로 베트남에 갔던 50대 이야기. 마지막에는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까지 이들의 말과 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삶,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야기'라고 이들이 조용히 말한다.

이 책은 '다름'의 이야기도 한다. 그저 다른 것이지, 우열도 강약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내안에 다름을 인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 폐망했다고 나는 들어왔고, 항미전쟁을 통해 베트남 해방을 이루었다'고 전혀 다른 이름, 다른 기억으로, 이런 전쟁 이야기는 심지어 꿈에서조차 이야기를 하게 한다.

'베트남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가라 그냥 그렇게 계속 가라. 그러면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바로 그곳, 당신이 마음속에 꿈꾸는 그 속에서도.' 베트남 감독 겸 시인 반레가 말한 꿈은 아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었을까.

요즘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인이 죽었다. 일본 열도가 술렁거리고 있다. 우리의 김선일 씨도 아프게 떠났다. 인터넷과 방송 모두 한 때 보도, 분석, 주장들로 혼란이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어머니, 동생의 어린 가슴은 그대로다. 꿈에 나올지도 모른다. 그 기억은 언제쯤 떠나 그들의 삶을 평화롭게 해 줄까.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도 베트남전도 내 몸으로 겪지 않은 나, 수많은 다른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들의 전쟁, 전쟁 후에 기억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김정우 (나와우리 사무국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에게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 과 만나십시오

<p>도해 팔상록</p> <p>음향 상록</p> <p>오고산 이종익, 삼재와 편역 신국양판 / 541쪽 / 값 15,000원</p> <p>보련각</p>	<p>- 바른 가르침의 원연곳</p> <p>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p> <p>묘법연화경</p> <p>오고산 이종익, 삼재와 편역 신국양판 / 1067쪽 / 값 30,000원</p> <p>부다가야</p>	<p>법화경 上·下</p> <p>법화경</p> <p>무비 옮김, 박성근 편역 / 신국양판 상 282쪽 - 하 320쪽 / 값 각각 8,000원</p> <p>불광출판부</p>	<p>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p> <p>한국 현대 고승 대전집</p> <p>삼각출판부</p> <p>www.samgakyung.com</p>
<p>근본불교 명상인정 수행법</p> <p>위빠사나 수행의 길</p> <p>위빠사나</p> <p>Vipassana</p> <p>가혜 스님 역음 신국양판 / 343쪽 / 값 12,000원</p> <p>새미값은물</p>	<p>성숙의 계발, 기쁨에 꼭 알아야 할 법 법정 스님이 말하는 홀로 사는 즐거움</p> <p>홀로 사는 즐거움</p> <p>가혜 스님 역음 법정 지음 / 286쪽 / 값 9,800원</p> <p>센터</p>	<p>마음의 눈</p> <p>마음의 눈</p> <p>문용경 지음 신국양판 / 286쪽 / 값 10,000원</p> <p>솔과학</p>	<p>간와신 중풍을 위한 선원정초장 대법외</p> <p>선 너는 누구냐</p> <p>선 너는 누구냐</p> <p>한대불교신문 역음 신국양판 / 286쪽 / 값 9,000원</p> <p>여시아문</p>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입니다 ★